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13 (수)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李 “약탈 금융” 지적에… 금융사들, ‘상록수 채권’ 새도약기금에 일제히 매각

조선비즈 https://zrr.kr/ccO8lj

금융사들이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연체 채권 보유분을 일제히 매각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을 놓고 “약탈적 금융”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

“제 점수가 왜 낮죠?”…은행 신용평가 불만 급증

이데일리 https://zrr.kr/gIW3oA

4대 은행의 올해 1분기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접수건수는 1만 3221건(지난해 연간 접수건의 68.6% 수준)으로, 올해 들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과 재산출 요구 소비자 급증
지난해 하반기 각 은행의 앱,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의 편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데다 ‘신용평점’에 대한 관심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

신한은행, '51조' 서울시금고 1·2금고 모두 수성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0BYjDG

신한은행이 1금고에서 총점 973.904점, 2금고에서 925.760점을 받아 1·2금고 모두 최고득점을 기록하며 연간 51조원 규모의 서울시금고 수성에 사실상 성공
이번 입찰에서는 금리와 출연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중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한은행은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서울시 자금을 관리

점포공백 대안 '은행대리업' 속도날까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VOCzP2

국내 은행들의 점포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503개로 1년 전보다 122개 감소하며 2024년(108개)보다 감소 폭이 확대
시중은행의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이 올해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업권도 최근 관련 협의에 착수

증시 호황 속, 증권·운용업계·종목 '부익부' 커졌다

전자신문 https://zrr.kr/dlyAIY

반도체주 강세 흐름으로 증시 몸집이 커지자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출시되면 상당한 양의 자금 또한 유입될 것으로 전망

저가 합병 막는다…‘공정가액 도입’ 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이데일리 https://zrr.kr/Vl8fzz

상장사가 합병할 때 저평가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이른바 ‘저가 합병’이 원천 차단
합병 가액 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생·손보 건강보험 시장, ‘신규 성장’보다 ‘갈아타기’… 5년 유지율 손보 50%·생보 40% 현실

보험저널 https://zrr.kr/Me0QBn

최근 시장 상황에 더 가까운 해석은 건강보험 시장이 신규 수요 기준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기존 계약의 리모델링 수요가 시장 외형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
특히 보험사 5년 계약유지율이 40~5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은 단순 해지 증가를 넘어 기존 계약이 새 상품으로 교체되는 회전 구조가 시장 안에 깊게 자리 잡았다는 의미

보험사 GA채널, 생보 한화생명 ‘독주’, 손보 메리츠화재 ‘수성’

보험매일 https://zrr.kr/4RfF2B

4월 보험사 GA채널 매출이 생·손보사 모두 전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생보는 한화생명, 손보는 메리츠화재가 우위를 지킨 모습
생보사 중 한화생명의 4월 GA채널 시장점유율은 15.2%, 손보사 중 메리츠화재 시장점유율은 18% 수준

코인 열기 식자 해외 투자자금 환류…국내 거래소는 ‘환전 창구’ 전락

이데일리 https://zrr.kr/i6l1Hk

국내 주식시장 강세와 가상자산시장 둔화가 맞물리면서 해외에서 운용되던 자금 일부가 국내로 돌아오는 흐름
업계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고위험·고수익 투자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내 거래소는 원화 환전과 자산 보관 창구처럼 이용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

美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전문 공개…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매일경제 https://zrr.kr/oedHJg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클래리티 법안)’의 전문(수정안)을 전격 공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금세탁(AML)과 사기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예고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